

「작은 제비의 커다란 꿈」

129번 — 이츠키 나나 15세 (15~19 부문)

검은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날갯짓을 한다. 내 몸이 공기를 가르며 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수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호수 내음이 나는 바람이 불에 닿는다. 바다 위를 나는 건 기분이 좋다.

물론, 혼자서 여행을 하기에 여행을 떠날 때는 무섭기 마련이지만 날기 시작하면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과 끝없이 넓은 바다에 빠져버리게 된다.

나는 제비다. 이제 곧 봄이 된다. 일본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하며, 겨울을 지내는 철새다.

슬슬 해님이 기울어진다. 물으로 가 쉬어야지.

때마침 작은 섬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나무들에 침묵이 스며들어 있어, 사람도 동물도 있을 것 같지 않다.

「으아, 이건 뭐지」

물결이 치는 부근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페트병과 유리병, 그중에는 정체도 모를 커다란 물체가 진흙투성이로 있었다.

「정말 너무해」

이 섬에 사람은 없으니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흘러왔을 것이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가까운 나뭇가지에 멈춰 서서 날개를 접었다.

하루 종일 바다 위를 날아와 피로가 쌓였다.

수평선 너머로 잘 익은 오렌지처럼 생긴 노을이 지고 있다. 해님의 빛이 바다에 반짝반짝 빛나는 길을 만들고 있다. 그것을 건너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쓰레기가 없었다면 이 섬은 더 아름다웠을 텐데」 ——그것은 작은 제비의 너무 큰 꿈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칙칙한 색의 페트병에 석양이 비치는 것을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로부터, 해님이 뜨고 짐을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나는 일본에 도착했다. 자동차와 사람이 자주 오가는 거리의 아동관에 나의 거처가 있다.

아동관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저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놀러 와서 신나게 웃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되돌아간다. 그런 곳이다.

「저거 봐. 제비가 올해도 놀러 왔어」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작은 아이를 몇 명 데리고 등지 밑으로 왔다. 아동관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다.

「제비는 사람이 사는 곳 근처로는 천적이 오지 않는 것을 알아서 매년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제비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해」

「저거 봐. 볼이 빨개!」

「저거 봐. 제비가 올해도 놀러 왔어」

「꼬리가 깨끗하게 서있어!」

아이들은 짹짹거리며 신나했다.

나는 자랑스러운 꼬리를 칭찬받아 기쁜 마음에 등지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중 한 아이와 문득 눈을 마주쳤다. 작고 마른 남자아이로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아이만은 웃거나 떠들지 않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자, 애들아. 오늘의 그림책은 제비가 나오는 이야기로 할까?」

여자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방 안으로 데려갔다.

내 등지는 창문 바로 옆에 있어서 여자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밖에서도 잘 들렸다. 또랑또랑 밝은 목소리로 여자는 그림책을 읽었다. 그것은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였다.

어느 마을에 「행복한 왕자」라고 불리는 동상이 있었다. 두 눈에는 사파이어, 검에는 루비가 박혀 있고 온몸에는 금박이 둘러져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왕자 동상이었다.

그 동상의 발밑에서 자려 했던 제비는 왕자가 마을 사람들의 불행한 삶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왕자는 제비에게 자신의 보석을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을 했다. 제비는 왕자의 두 눈에 있던 사파이어를 성냥을 파는 소녀와 젊지만 가난한 극작가에게, 검에 있던 루비를 아픈 아이들이 있는 집에 나눠줬다.

제비는 남쪽 나라로 가지 않았다. 두 눈을 잃어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왕자를 대신해 마을의 상황을 왕자에게 알려줬다. 왕자는 자신의 금박을 뜯어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고, 제비는 마을을 날아다니며 금박을 나눠줬다.

이윽고 겨울이 찾아와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 된 왕자는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받지 못했고, 제비도 추위에 떨다가 죽고 말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멋진 행동은 신에게 인정받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다.

「훌륭한 제비가 있었구나」

나는 은근히 자랑스러워짐과 동시에 조금 슬프기도 했다. 왕자의 금박을 벗길 때 그 제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왕자의 보석과 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림책 읽기가 끝나고, 나는 주위 상황을 보러 가기로 했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휩 타며 높이 날았다. 큰 건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니, 등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사람도 조그맣게 보였다.

이곳은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 나무를 벨 수밖에 없더라도 사람의 삶은 계속 이어졌다.

「어라, 저런 곳에 제비가 있네……」

아파트 옥상 빨랫대 위에 제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너, 무슨 일이야?」

그 제비는 수컷이었다. 꼬리가 축 처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둥지가 없어졌어」

「둥지가? 왜?」

「사람이, 내 둥지를 부셨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둥지에서 잠깐 내 아이를 키웠을 뿐인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똥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호소하며 둥지를 부수는 사람이 늘었고, 이 일은 제비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나도 똥을 쌀 때는 가능한 한 조심하고 있다.

「사람은 없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착한 사람도 많아」

「내 둥지를 부순 사람이 착할 리가 없잖아!」

틀렸다,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래! 일단 내 둥지를 써도 돼! 그러면 우선 안전할 거고, 착한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를 달래며, 반쯤은 억지로 내 둥지로 데리고 갔다.

둥지로 돌아오니 어느샌가 둥지 바로 밑에 신문지가 깔려 있었다. 똥으로 도로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같다.

「봐,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

하지만, 그는 콧방귀를 끼었다.

나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은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존재가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저것 좀 보라며 그는 길가의 덩불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빈 깡통과 페트병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저건 전부 사람이 버린 거야. 너도 바다를 건너왔으면 알 거 아냐?」

나는 그 섬에서 본 쓰레기의 양을 떠올렸다.

「게다가 나무가 여기저기 줄어들고 있어. 그것도 사람이 한 거야. 여기로 오던 중에 산 쪽에서 엽총을 들고 있던 사람도 봤어」

「엽총이 뭐야?」

「동물을 죽이는 도구야. 사슴도, 커다란 곰도 단숨에 죽어」

「히이익……」

그런 도구는 너무 무섭다.

「뭐, 여기는 도시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알잖아, 사람은 나쁘다는걸. 우리 같은 동물이나 다른 식물을 이용해, 자기들이 편안해질 생각밖에 하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연을 부수고, 동물을 죽이는 사람.

나를 매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

어느 쪽이 진실된 「사람」 일까.

모두 사이좋게 살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동물과 사람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을 이용하잖아?」

「뭐라고?」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 있잖아」

사람은 자연의 동식물을 이용해 생활한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의 바로 옆에서 생활함으로써 몸을 지킨다. 상부상조, 어느 하나가 없어도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렬 수도, 있, 지만……」

그의 감정은 잘 안다. 사람이 동지를 부렸으니, 원망과 질투는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이 전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기억만큼은 해두길 바란다.

「어라, 저거 봐!」

나는 아이의 높은 목소리에 몸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아까 아동관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이끌려 동지를 보고 있던 허름한 티셔츠를 입은 남자아이가 있다.

옆에는 여자가 있었지만 아동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아마도 어미일 것이다.

「제비가 왔어!」

어미도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로 묶은 머리가 몇 가닥 흐트러져 있다.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아이의 나이에 비해 늙어 보였다.

「제비는 행복을 가져다줘!」

남자아이는 서툰 말솜씨로 『행복한 왕자』 이야기를 어미에게 들려줬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한테도 제비가 도움을 주러 올 거야! 루비나 사파이어나 금을 가져다줄 거야! 만약 그러면」

그는 생긋 웃으며 어미에게 말했다.

「파란 란도셀을 살 거야!」

어미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그리고는 무릎 굽혀 앉아 남자아子和 눈을 맞췄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내년 봄까지는 꼭 사줄게」

「그렇지만, 엄마 일 힘들잖아. 제비가 도와줄 거니까, 괜찮아!」

그 천진난만한 미소가 어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도 찡하게 했다.

분명, 그들은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미는 그것을 자식은 모르길 바라며 숨겼겠지만, 남자아이는 아마도 알아챈 것 같다. 사람의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란도셀이라는 것은 조그만 아이가 곧잘 메고 다니는 가방인 것 같다. 무조건 사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제비가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지…… 응, 그러면 좋겠네……」

어미는 조용히 웃었고, 남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섰다.

「오늘은 크로켓 사 갖고 갈까?」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돌아갔다. 주황색 노을이 하늘을 비추었다.

「저 아이, 우리가 정말 행복을 가져다줄 거라고 믿는 거 같은데」

그는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없나」

「보석이란 게 반짝반짝 빛나고 여러 색을 가진 돌이지?」

「응. 하지만, 우리는 보석을 나를 수 없어. 그래서, 『행복한 왕자』의 제비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보석은 돌이잖아? 꽤 무거운 거야」

「그렇지 않아. 보석은 어디선가 갖고 오는 거야」

그렇다. 우리 제비는 할 수 있는 것이 적다. 그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할 수 있는 일이라……」

「기왕이면 그 아이와 어미도 웃을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이건 어때……?」

그는 사람에게 대해 좋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어느샌가 즐겁다는 듯이 의견을 나눴다. 알고 보면 착한 녀석이다.

그다음 날.

「저 아이의 집을 알았어. 오래되고 크고 네모난 건물의 구석이었어」

「창문은 있었어?」

「응. 그리고 밖으로 날아갈 수 있는 작은방 같은 것도 있었어」

베란다라고 하는 건가. 상황이 좋다.

「그쪽은 어때?」

「완벽해. 주변 제비들도 도와줄 것 같아서 조금 재밌을 것 같아」

계획은 착착 진행됐다. 무엇인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실행은 내일이야. 내일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알림이 울리면 동시에」

「응」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 눈을 감아 보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윙크라고 하는 것인가.

다음 날.

우리 동지 주변에 사는 여러 제비들이 모였다.

「알림이 울리면 다 같이 맞춰서 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나갔다. 모두 평소와는 다른 이 계획에 들떠서 두근거려 했다.

「얼마 안 남았어」

「응. 애들아, 준비됐지?」

모두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 정한 위치에 섰다.

하늘이 푸르다. 해님이 눈부시다. 이런 좋은 날에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작은 제비의 무모할 정도로 커다란 꿈이라도 오늘만은 그것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딩-동-댕-동

딩-동-댕-동

울렸다!

우리는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부리에는 여러 색깔의 꽃들이 물려 있다.

나는 먼저 거의 안내를 따라 남자아이와 어미가 사는 방으로 향했다.

그가 부리로 창문을 쿵쿵 두드리니 마침 거기서 놀고 있던 남자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제비가 왔어!」

「뭐라고?

「빨리 와봐!」

남자아이가 안에서 어미를 끌어당기며 왔다.

나는 부리로 물고 있던 꽃을 창문 옆에 슬며시 놓았다.

그건 제비꽃이었다. 꽃말은 「작은 행복」.

남자아이와 어미에게 작은 행복이 오길. 그런 염원을 담았다.

「준비됐어?」

「응」

우리는 호를 그리듯 각자 반대 방향을 날았고, 그 궤적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 행복을 상징하는 모양이다.

「말도 안 돼……」

어미는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남자아이는 지금까지 지어본 적 없는 만큼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 말했지? 제비는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고!」

우리는 눈을 마주 보고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획 날아 그곳을 뒤로했다.

그 모자가 살고 있는 주변 집에도 우리의 동료 제비들이 꽃을 나눠줬다. 종류는 전부 다르지만, 공통점은 꽃말이 「행복」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꽃에는 사람이 정한 「꽃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옆에서 날고 있는 제비다. 그는 꽃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꽃을 딸 때는 이제는 철이 지나 시든 꽃에게 말을 걸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모두가 「기꺼이」 도와줬다.

그에게 어떻게 꽃말을 잘 아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내 등지가 있던 집은 작년까지 나이 든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내가 오면 엄청 기뻐 보였어. 언제나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정원의 꽃에게 물을 주면서 꽃말에 대해 자주 혼잣말을 했어. 민들레는 진실된 사랑이야,라고」

그는 조금 쓸쓸해 보이는 눈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할머니가 내 등지를 부숴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분명 그 할머니는 어디론가 가버렸겠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야,라고 그는 슬픈 듯이 말했다. 그 얼굴이 지금도 내 눈에 새겨져 잊히지 않는다.

「너 말이야」

나는 옆에서 날고 있는 제비에게 말했다.

그는 옆에서 날고 있는 나를 봤다.

「왜?」

「너는」

뭔가 격려할 수 있는 말을 떠올렸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떠오른 것도 너무 뻔한 말이었다. 하지만, 짧은 세 글자에 진심을 담았다.

「고마워」

「응」

그는 부끄럼을 잘 타는지, 고개를 휙 돌렸다.

그러자, 갑자기 반대쪽에서 두 마리의 제비가 다가왔다. 둘 다 암컷이었다.

「저기, 너희가 이 계획을 생각해냈지?」

「엄청 멋있어! 난 계속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그 제비들은 눈을 반짝이며 우리에게 칭찬을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왜 생각한 거야?」

나와 그는 얼굴을 마주하고 웃었다. 계획이라도 한 듯 우리의 두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우리와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꽃을 준다고 딱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저, 아주 잠시라도 「지금」에 막혀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무척 기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우리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다. 그가 「사람은 나쁜 놈이야」라고 말했을 때였다.

답은 간단하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 꺾고, 부셔서 주위에 나눠주면 된다.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다. 그 『행복한 왕자』처럼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조금 내밀기만 해도 괜찮다.

그것을 이 세상 모두가—— 사람도, 동물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 한다면 이 세상은 더 다정하고, 깨끗하고, 밝고, 행복해질 것 같다.

——그것은 작은 제비의 너무 큰 꿈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누구나 다른 이의 「행복한 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